

목 차

1. 연암 박지원의 중국 바로 보기
2. 다산 정약용의 좌절된 정치 개혁
3. 환재 박규수의 개화파 사랑방
4. 구당 유길준의 삼중 어려움
5. 약영 김양수의 미완성 식민지 국제정치학
6. 민세 안재홍의 실패한 20세기 복합론
7. 동주 이용희의 한국 국제정치학
8. 복합파의 암호 풀기: 21세기 세계정치학

18C

- 권철신(1736 ~ 1801)
- 권일신(1742 ~ 1791)
- 이가환(1742 ~ 1801)
- 이 벽(1754 ~ 1786)
- 이승훈(1756 ~ 1801)
- 정약전(1758 ~ 1816)
- 정약중(1760 ~ 1801)
- 정약용(1762 ~ 1836)

- 홍대용(1731 ~ 1783)
- 박지원(1737 ~ 1805)
- 이덕무(1741 ~ 1793)
- 백동수(1743 ~ 1816)
- 유득공(1749 ~ 1807)
- 박제가(1750 ~ 1805)
- 이서구(1754 ~ 1825)

- 김정희(1786 ~ 1856)

19C

- 최한기(1803 ~ 1879)
- 박규수(1807 ~ 1877)
- 유흥기(1814? ~ 1884?)
- 오경석(1831 ~ 1879)
- 김윤식(1835 ~ 1922)
- 어윤중(1848 ~ 1896)
- 이동인(1849 ~ 1881)

- 김옥균(1851 ~ 1894)
- 홍영식(1855 ~ 1884)
- 유길준(1856 ~ 1914)
- 서광범 (1859 ~ 1897)
- 민영익(1860 ~ 1914)
- 박영호(1861 ~ 1939)
- 변 수(1861 ~ 1892)
- 서재필(1864 ~ 1951)
- 윤치호(1865 ~ 1945)

- 이승만(1875 ~ 1965)
- 김 구(1876 ~ 1959)
- 안창호(1878 ~ 1938)
- 신채호(1880 ~ 1936)

20C

- 홍명희(1880 ~ 1968)
- 조만식(1883 ~ 1950)
- 여운형(1886 ~ 1947)
- 조소앙(1887 ~ 1958)
- 안재홍(1891 ~ 1955)
- 김양수(1896 ~ 1969)
- 심 훈(1901 ~ 1936)

- 김성수(1891 ~ 1955)
- 신익희(1892 ~ 1956)
- 장덕수(1894 ~ 1947)
- 송진우(1896 ~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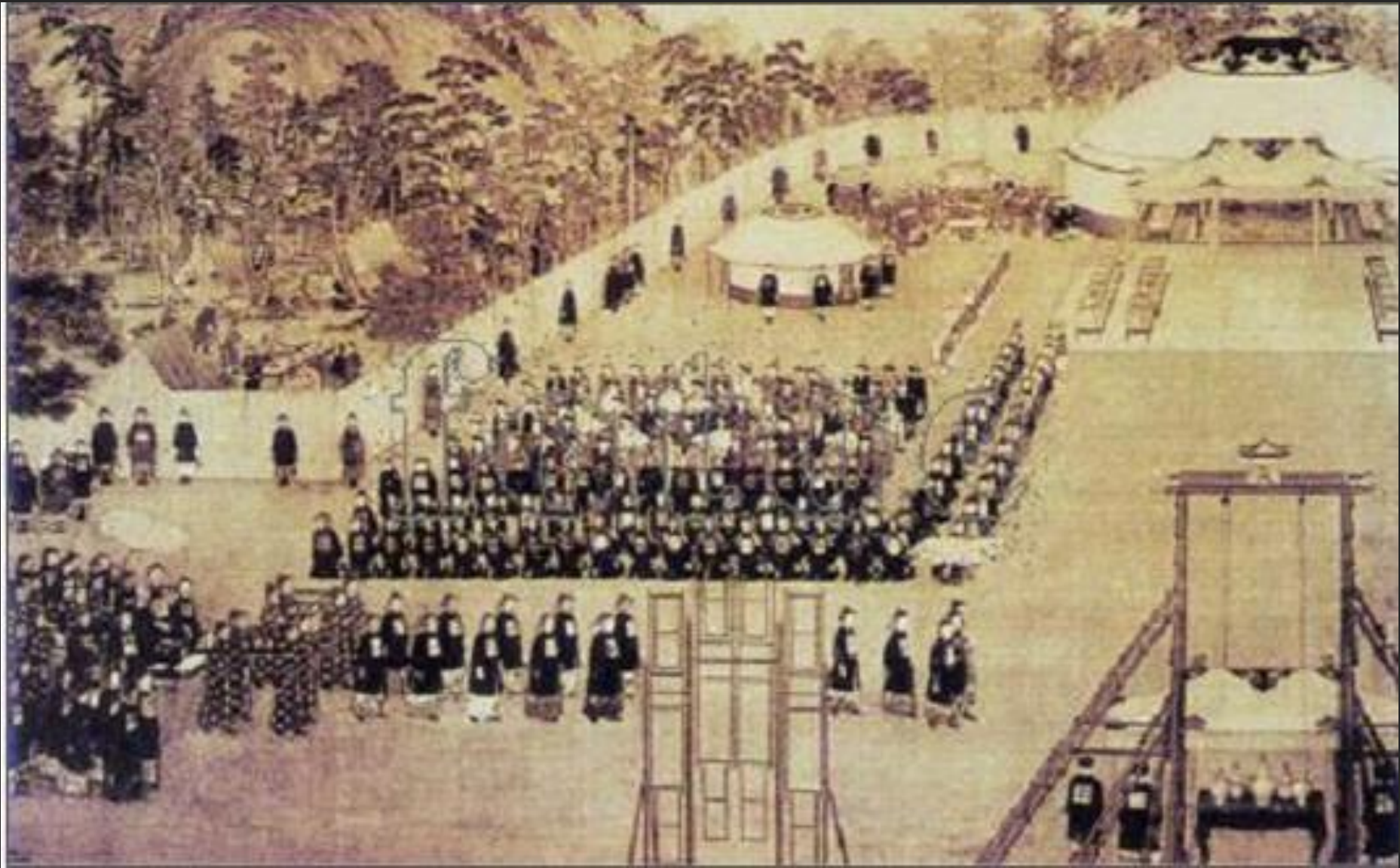
- 최남선(1890 ~ 1957)
- 이광수(1892 ~ 1950)

- 김명식(1890 ~ 1943)
- 김철수(1893 ~ 1986)
- 박헌영(1900 ~ 1956)
- 김일성(1912 ~ 1994)

- 이용희(1917 ~ 1997)

1. 연암 박지원의

중국 바로 보기



1754년 열하 피서산장의 만수원(萬樹園) 연회장면

2. 다산 정약용의

좌절한 정치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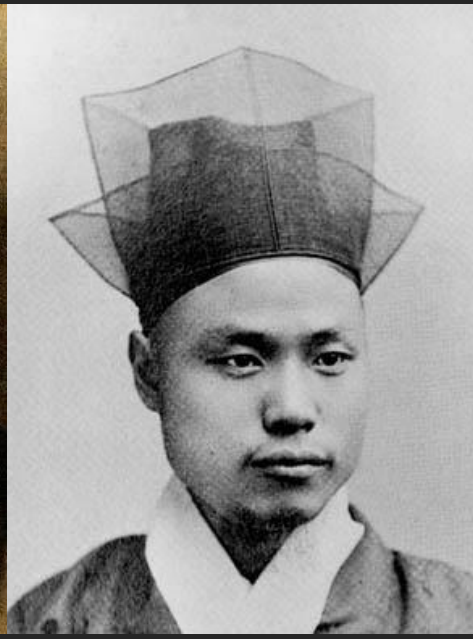
다산초당과
천일각

3. 환재 박규수의

개화파 사랑방



박규수의 사랑방



박규수의 제자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4. 구당 유길준의

삼중 어려움

문명개화론(文明開化論)

현홍택

미야오카

유길준

최경석

고영천

변수



퍼시벌 로웰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

우리탕

	주인공	무대	연기	제도
전통	천하국가	예(禮)	사대자소 [事大字小]	책봉조공
근대	국민국가	부국강병	자강균세 [自強均勢]	상주외교관 조약체계
복합	그물망국가	공치 부/강/문화/생태 지식	경쟁공진 [競爭共進]	복합그물망외교

- 가. 유길준『서유견문』(1887-1889/1895)
- 행실의 개화./학술의 개화/정치의 개화/법률의 개화/기계의 개화/
- 물품의 개화

- 나. 福澤諭吉 『文明論之概略』(1875)
- 智德의 개화/政法의 개화/의식주와 기계의 개화

- 다. 프랑스: Francois Guizot *Histoire generale de la civilization en Europe*
- 영국: Henry Thomas Buckle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



- <西遊見聞> (1887-1889/1895)14편

- 外國이면 盡善하다하여 自己의 國에는 始何한 事物이든지 不美하다하며 已甚하기에 至하여는 外國의 景況을 稱道하여 自己의 國을 慢侮하는 弊俗도 有하니 此를 開化黨이라 謂하나 此豈 開化黨이리오 其實은 開化의 罪人이며 不及한者는 頑固한 性稟으로 事物의 分界가 無하고 外國人이면 夷狄이라하고 外國物이면 無用件이라하고 外國文字를 天主學이라하여 敢히 就近하지 못하며 自己의 身이 天下의 第一인듯 自處하나 甚하기에 至하여는 避居하는 者도 有하니 此를 守舊黨이라 謂하나 此豈 守舊黨이리오 其實은 開化의 讐敵이니... 若其한中에 外國卷烟을 吮하고 胸前에 外國時標를 佩하며 其身이 拵凳이나 交椅에 踞坐하여 外國의 風俗을 閒話하여 其言語를 略解하는者가 豈曰 開化人이리오 此는 開化의 罪人도 아니오 開化의 讐敵도 아니라 개화의 虛風에 吹하여 心中에 主見업시 一箇 開化의 病身이라.

- 전통없는 근대를 추구하는 개화의 죄인과, 근대없는 전통을 추구하는 개화의 원수, 전통의 긍정적 측면을 버리고 근대의 부정적 측면만 받아들인 개화의 병신만 존재하고 있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현실 속에서, 유길준이 당면하고 있었던 최대의 과제는 단순한 서양문명의 소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의 갈등이 아닌 조화를, 더 나아가서 복합화를 당시의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양질체제론(兩截體制論)

-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1887-1889 집필/1895 출판)
제3편 「방국(邦國)의 권리(權利)」

“조공받는국가가 그런즉 여러국가에게 같은 예도를 행하고 조공받치는 나라에게는 독존의 모습을 마음대로 하니 조공하는 국가체제가 조공받는 나라와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앞뒤로 나뉘지고 조공받는 국가체제도 조공받치는 국가와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역시 앞뒤로 나뉘진다. 조공받는 국가와 조공받치는 국가를 하나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형세의 강약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의 유무만 따지기 때문이다. 강국의 망령된 존중에 대해서는 공법의 비난이 있고 약한국가의 수모에 대해서는 공법의 보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가 아닌 치우친 막힘은 공법이 행해지지 않아서 약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길이니 강자가 자행하는 교만한 습관을 조성하는데는 공법의 한 조목도 세우지 않았다.”(受貢國이 然則諸國을 向하여 同等의 禮度를 행하고 贈貢國을 對하여 獨尊한 體貌를 擅하리니 此는 贈貢國 體制가 受貢國及 諸他國을 向하여 前後의 兩截이오 受貢國의 體制도 贈貢國及 諸他國을 對하여 亦前後의 兩截이라 受貢國及 贈貢國의 兩截體制를 一視함은 何故오 形勢의 強弱은 不顧하고 權利의 有無를 只管하나니 強國의 妄尊은 公法의 譏刺가 自在하고 弱國의 受侮는 公法의 保護가 是存한지라 然한故로 如是不一한 偏滯 公法의 不行으로 弱者의 自保하난 道니 强者의 恣行하난 驕習을 助成하기 爲하야난 公法의 一條도 不設함이라.)

- ※속국자주/속국종속/조공독립/자주독립

군민공치론(君民共治論)

- 군주천단(擅斷)정체
- 군주명령정체/압제정체
- 귀족주장정체
- 군민공치정체/입헌정체
- 국민공화정체/합당정체

조선문명화의 좌절

- 갑오개혁의 좌절
- 외세활용의 실패
- 국내역량의 효율적 결집실패

5. 약영 김양수의

미완성 식민지 국제정치학



1917년 김양수 와세다대학 졸업사진

6. 민세 안재홍의

실패한 20세기 복합론



1911년 11월
민세의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시절



1947년 광복절 행사. 이승만, 김구,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수석대표 스티코프, 안재홍

7. 동주 이윅희의

한국 국제정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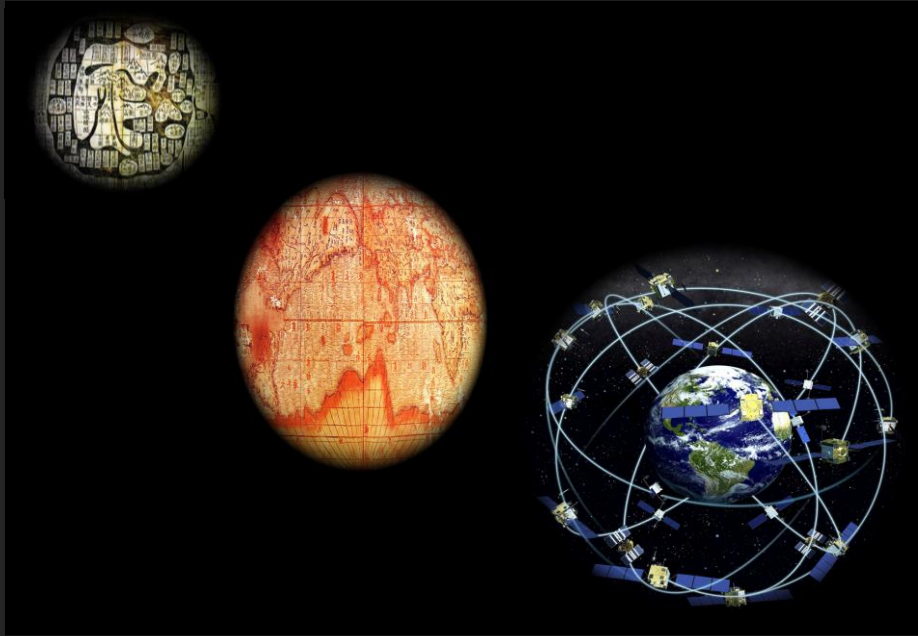
李用熙先生渡美記念
1956.6.23

1956년 미국학계 시찰 전 제자들과 함께 한 이용희

8. 복합파의 암호 풀기:

21세기 세계정치학

주인공의 복합화:그물망국가/늑대거미



2.주인공의 복합화: 국가+초국가그물망+국가내부그물망

늑대거미



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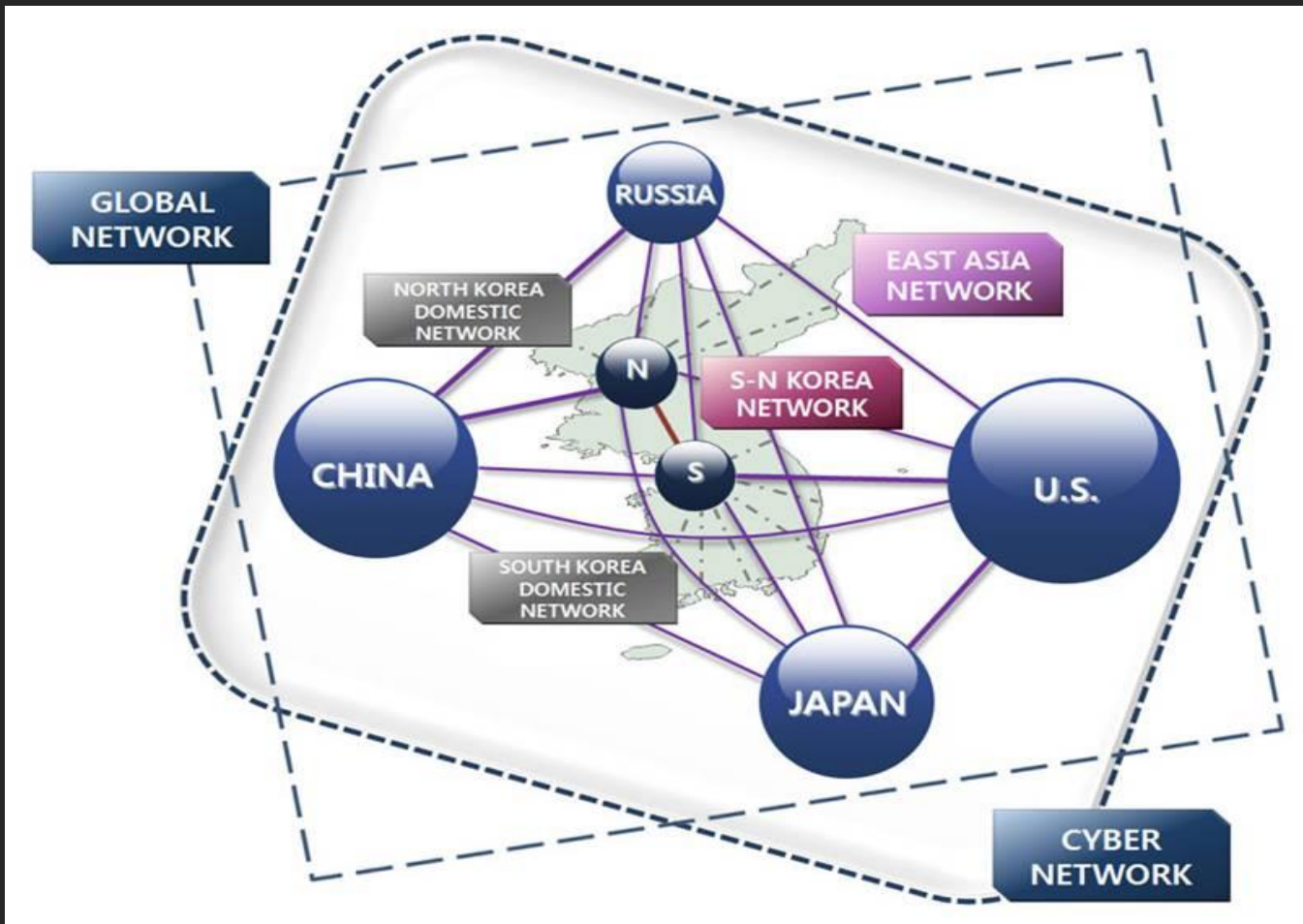
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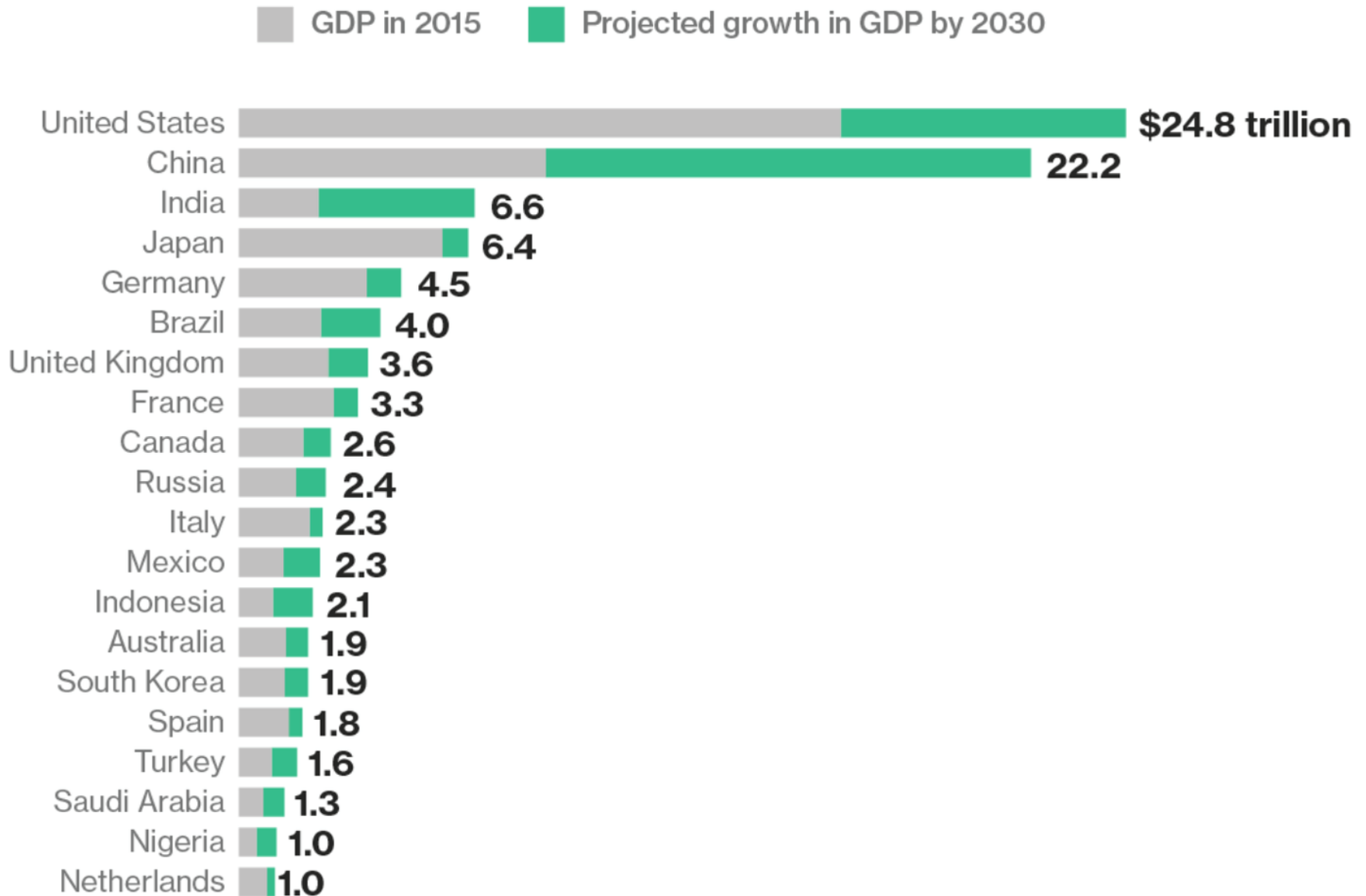
복합



네트워크국가의 5중그물망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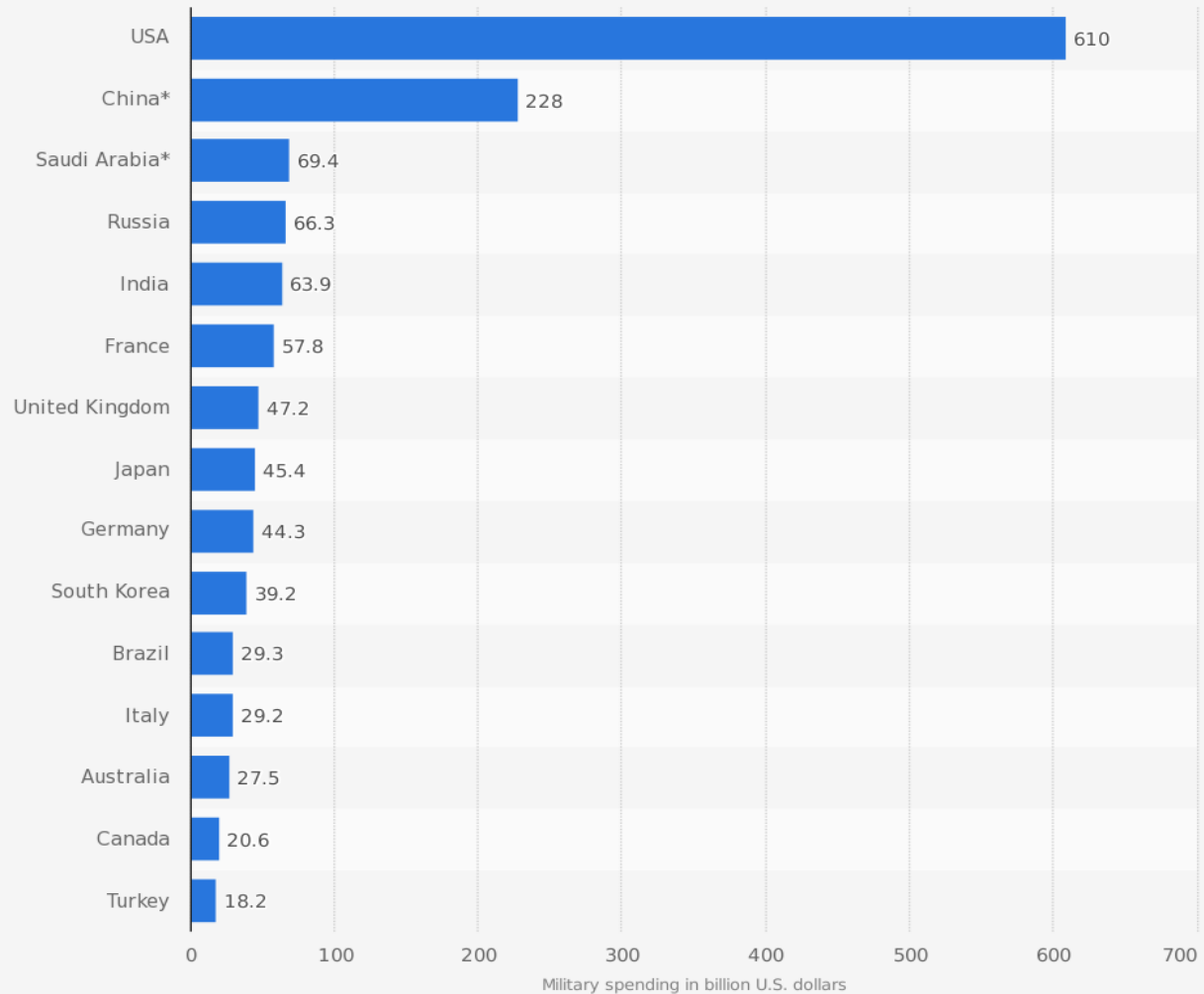


World's 20 Largest Economies in 2030



Sour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he 15 countries with the highest military spending worldwide in 2017 (in billion U.S. dollars)



Source
SIPRI
© Statista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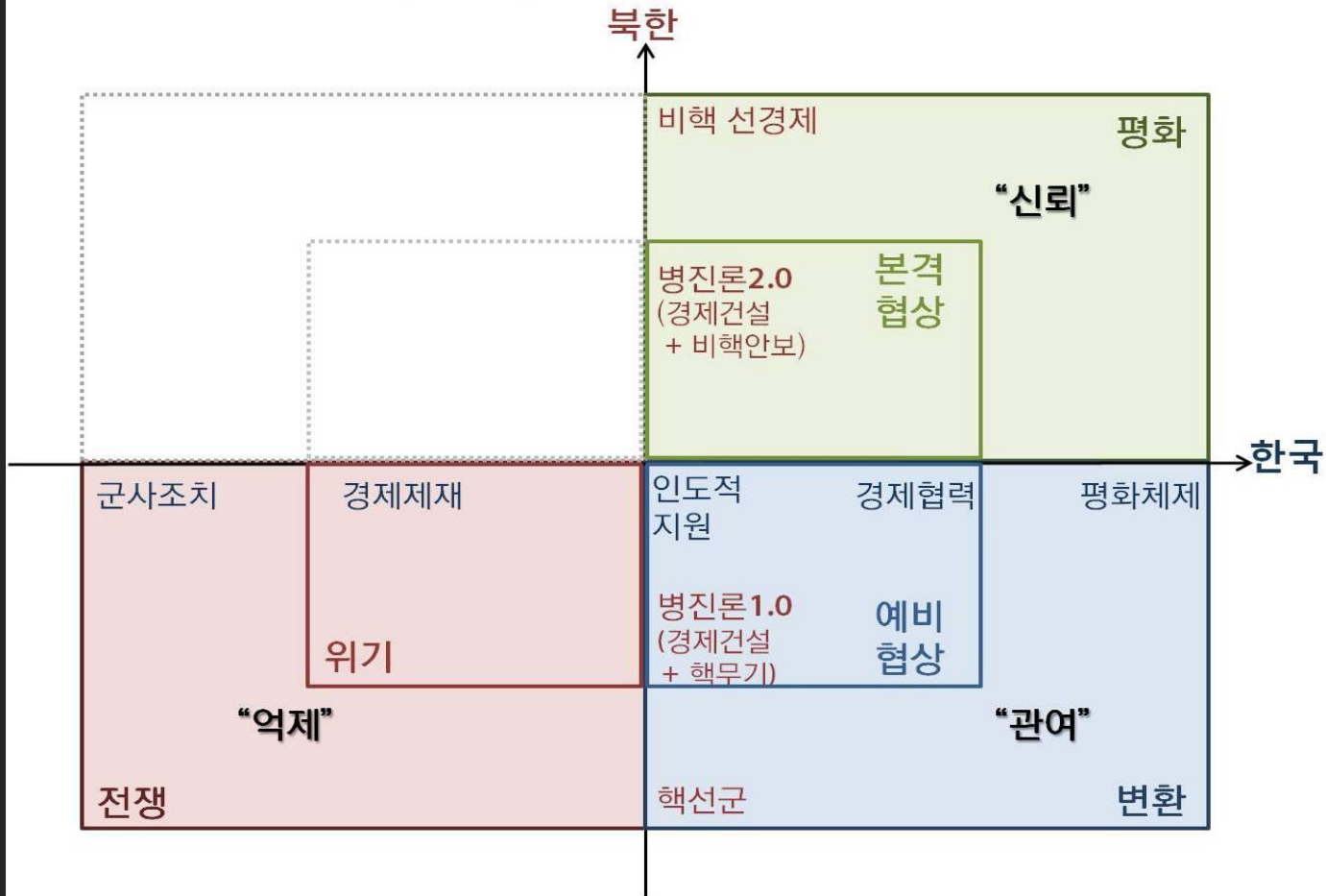
Additional Information:
Worldwide; 2017

Top 20 Think Tanks (US and Non-US) in 2015

1. Brookings Institution (United States)
2. Chatham House (United Kingdom)
3.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United States)
4.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United States)
5. Bruegel (Belgium)
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United States)
7.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United Kingdom)
8. RAND Corporation (United States)
9.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United States)
10. Amnesty International (AI) (United Kingdom)
11. Cato Institute (United States)
12. Heritage Foundation (United States)
13. Fundacao Getulio Vargas (FGV) (Brazil)
14.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Germany)
15.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IIA) (Japan)
16.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RI) (France)
17. Fraser Institute (Canada)
18.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WP) (Germany)
19.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 (United States)
2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United States)

네트워크국가의 남북그물망짜기

[그림 1]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무대의 복합화: 3층 복합 다보탑쌓기
{[(안보/번영+공생+문화)∈기술정보지식] ∈공치}



Q연기의 복합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공진(coevolution)=공생(symbiosis)

k

Homo homini lupus



늑대거미/hummingbirds+flowers



사랑의 세계정치학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서울대